

전세계 서예가들이 전북으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10월 12일 개최
23개국 1000여명 작가에게 작품의뢰
순수 창작 공모전 이달 28일까지 접수

2019년, 서예진흥법이 시행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서예의 진흥을 위해서 서예계가 단합하여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해이다.

서예진흥정책포럼이 발족되어 정기적으로 포럼을 진행하면서 서예진흥을 위한 대안을 찾고 있다.

이러한 때에 세계적으로 그 규모의 방대함과 높은 수준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제12회 행사가 오는 10월 12일부터 개최된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1997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기념하는 문화행사의 하나로 첫 발을 내딛은 이후, 우리 한국의 서예가들은 물론 중국, 일본, 대만을 비롯하여 동남아 각국의 서예가들과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 서방 여러 나라 서예가들의 협조와 참여 속에서 꾸준히 성장하여 금년 영광스러운 제12회를 맞이한다.

지난 20여 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 결과 서예의 본체 및 본질 구현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바, 동양의 전통철학을 구성하는 대표 명제인 '도(道)'와 '기(氣)'를 중추로 서예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며, 근원적 본질의 순수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2019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의 주제를 '자연정신과 서예'로 설정했다.

'서예 도(道)를 밝히다'전을 비롯해 총 29개 행사가 한국서예문화의 전당을 중심으로 다채롭게 치러질 예정이다.

현재 23개국 약 1,000여명의 작가에게 작품을 의뢰한 상황으로 작품 수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눈길에 가는 몇몇 전시가 있어 미리 소개하고자 한다.

10m의 대형작품으로 꽤 거대한 젊은 작가들의 힘과 한국서예의 비상을 알리는 서예 비상

진, 실용적인 작품으로 재탄생을 기대하는 서예 융화전의 소품서예 전시, 서예의 깊은 미감과 도자기의 입체성이 만나는 서·화·각·도자전 등이다.

특히 특별전으로 기획된 '내고향 예찬전'은 14개 시·군의 특산물 및 관광명소 등을 노래한 시문 등 그 고장에서 활동하는 작가나 출향작가를 선정하여 서예로 작품화한 뒤 배너를 제작하여 각 시·군의 주요거리에 전시할 계획으로 전북의 우수한 문화와 관광 자원을 보여주고 자긍심을 높이는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미래의 전북서예, 나아가 한국서예를 이끌어갈 역량있는 신진작가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순수 창작 공모전은 이달 28일에 접수를 마감한다.

전북도 안동환 문화예술과장은 "전북의 우수한 문화예술인 서예의 전통성과 예술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성기자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에서 지난해 개관 전시한 '회상, 회향'에 이어 두 번째 김병종 기증 작품특별전인 '묵향(墨香)'이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수묵의 향기에 흠뻑 빠지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서 김병종 기증작품 특별전 진행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에서 지난해 개관 전시한 '회상, 회향'에 이어 두 번째 김병종 기증 작품특별전인 '묵향(墨香)'이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개관 전시 '회상, 회향'이 김병종 작가의 40년 회화세계를 조망한 회고전 성격을 지녔다면 '묵향'은 작가의 수묵 작품 세계를 되돌아보는 전시이다.

김병종의 최근 작품들이 밝은 색채감으로 강렬한 생명력을 과시하는 반면, '묵향'전에서 선보이는 1980년대~2000년대 초반까지의 작품들은 토속성 넘치는 다편(다필포 등의 재료를 섞어 만든 화면)에 기운 생동하는 수묵의 필획이 돋보인다.

총 42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

서는 갤러리에서 생명의 노래 연작과 화첩기행 삼화 원작을, 갤러리에서는 최근 기증된 상선약수와 수류화개를 최초로 공개하고, 특히, 가로 10미터의 '생명의 노래'는 한 눈에 사로잡는 대작이다.

한편 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을 통해 김병종 작가의 다채로운 회화 세계에 꾸준히 양분을 전달해 주는 수묵의 향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8월 28일까지 진행되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관람료는 무료이고 전시회 관련 문의 전화는 063)620-5660~5로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기자



고창군 성내면에 있는 황윤석 선생 생가.

오늘 조선 후기 대표 실학자 이재 황윤석 선생 학술대회 열려

오전 10시 30분부터 고창 청소년수련관서

고창군과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소장 한문종)가 오늘 고창이 낳은 조선시대 대표 실학자 이재 황윤석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연다.

오전 10시 30분부터 고창 청소년수련관 내 청소년 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전북대 하우봉 교수가 '백과전서와 실학의 거목, 이재 황윤석'을 기조강연 한다.

이어 ▲이재 황윤석의 생애와 학문권력(권오영 교수) ▲월주기를 통해 살펴본 황윤석의

가족에 대한 사랑(이상봉 교수) ▲이재 황윤석의 서행일기에 나타난 18세기 지식과 지식인들-이재난고의 지식학적 의미(김승룡 교수) ▲이재 황윤석의 백양사 학술 활동 및 교류(박순철 교수) ▲이재 황윤석의 성리학사상과 성리대전(최영성 교수) ▲이재 황윤석의 박학적 학문 경향과 자연학(구만욱 교수) ▲이재난고의 부종향차보와 선문사 티 스토리(손영란 박사) 등 다양하고 유익한 주제로 발표가 진행 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금까지 이재 선생에 대해 연구해 온 연구자들이 중심이 돼 이재 황

윤석의 다양한 학문과 사상을 심도 있게 다룬다.

특히 이재 황윤석이 태어나 활동한 고창에서 학술대회를 열면서 조선 18세기 대표 이재 황윤석을 지역민에게 널리 알려 자긍심을 높이고, 이재 황윤석 연구에 대한 저변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재연구소 한문종 소장은 "이재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재 선생의 사상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전북새일센터, 여성 창업 비법 전수·창업지원제도 교육 실시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윤에 센터장)는 오는 24일부터 3일 간 여성창업특강 '선배와 함께하는 창업 토크쇼'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비여성창업자를 위한 이번 창업특강에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 ▲창업 세무 ▲창업 지원제도 소개 ▲창업아이템 발굴 및 트렌드 분석 ▲여성 CEO의 창업 성공 사례 등 창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특강을 진행한다.

창업에 관심 있는 도내 여성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할 수 있고, 교육은 21일까지 전북광역새일센터(063-254-3719)로 방문 및 전화 신청 가능하다.

이번 교육은 전주세무서, 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희망창업협의회 등 창업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창업아

이템 기획·수정·보안 등 다각적 측면의 창업정보 제공한다.

더불어 창업에 성공한 여성(마더스프 김주희 대표)의 창업아이템 현실화 방안,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노하우를 전수 받는 토크쇼를 진행하여 예비여성창업자들의 성공 창업 가능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할 예정이다.

이윤에 센터장은 "앞으로도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여성창업자들에게 전문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여성 창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업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적극 지원했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광역새일센터(063-254-3719)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